

# 초·중·고 교사 10명 중 7명 女

### 초등학교는 약 80% 여성 교사...10년전 比 심화 출산·육아휴직 등 수월...여학생 교·사대 인기 돌봄서비스 등 여성 사회진출 위한 보완 필요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사 10명 중 7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교사직업 타 직종에도 출산과 육아휴직 등을 활성화 해 여성의 사회 진출 통로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2일 입시업체 진학사에 따르면 2018년 초중고 교사 43만817명 중 여성은 29만1009명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18만 6684명의 교사 중 여성 비율이 77.17%, 14만4065명이었다. 중학교는 69.7%, 고등학교는 52.4%가 여성교사였다.

이는 10년 전보다 심화된 추세다. 2008년 전체 교사 40만3769명 중 여성의 비율은 61.8%였다. 10년 새 5.8%포인트가 증가했다.

올해 신규교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교직에서 여성의 비율은 높은 편이다.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19학년도 국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 합격자수에 따르면 836명 중 76.9%인 643명이 여성이다. 지난 1월 발표한 초등학교 임용에서는 합격자 368명 중 무려 85.1%인 313명이 여성이었다.

진학사 관계자는 "초등학교 교사의 80%에 육박하는 인원이 여성교사라는 것은 저학년 학생들의 성역할 정립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교육과 생활지도 면에서도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직에는 여성들의 진출 시도 자체가 많은 편이다. 올해 서울지역 중등학교 응시자 수를 보면 7064명의 여성이 지원해 전체 지원자 8977명 중 78.9%를 차지했다. 남성은 21.1%였다.

교직의 여초현상은 상대적으로 고학력 전문직 여성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좁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현진 대변인은 "기업에 입사할 경우 출산 이후에 경력을 이어가기가 힘든 반면 교사의 경우 출산과 육아휴직이 타 직종에 비해 보장이 되는 직군"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2018년 여학생이 73.8%, 남학생이 65.9%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지난해 11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여성임원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임원 중 여성은 454명으로 전체의 3.0%에

불과했다. 지난 6월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표

리스 2019 여초현에도 우리나라 여성 관리자 비중은 12.3%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인 27.0%, 동아시아 지역 평균 25.8%에 절반에도 못 미쳤다.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직업경력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1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경력단절여성 184만

7000명 중 30대가 48%로 절반을 차지했다. 경력단절 사유로는 결혼 34.3%, 육아 33.5%, 임신·출산 24.1% 순이었다.

한성대 사회학과 김귀옥 교수는 "현상적으로 보면 교사와 연결하지 않아도 여성들이 사회진출하는 분야가 제한돼 있는 건 맞다"며 "출산과 육아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원함을 잡고 싶어요 충북인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아이들이 쿨링포그 옆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 국토부, 휴가철 음주·안전띠 집중단속...특별대책 운영

국토교통부는 이달 25일부터 8월11일까지 18일간을 '하계 휴가철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총 8833만명, 하루 평균 491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84.1%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471만대로 전년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평시 주말(439만대)보다는 많고 평시 급요일(500만대)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휴가지로 출발하는 차량은 이달 31일~8월1일,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차량은 8월3일~4일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운송수단별로 교통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대책기간중 총 7426만명(하루 평균 413만명)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하루 최대 이용객은 8월2일 446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40개 구간 241.4km에서 갓길 차로제를, 3개 소 4.1

km에서 임시 감속차로를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기흥 등 23개소에서 고속도로 진입교통량을 관리하고 교통관리 전담요원을 현재 131명에서 438명으로 증원 배치한다.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고속도로 79개 구간 758km 일반국도 15개 구간 226.2km를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중점 관리한다.

고속버스 이용객은 총 94만명, 하루 평균 5만명으로 분석됐다. 이에 예비차량을 112대 투입해 운영을 현재 5301회에서 6537회로 1236회 늘려 수송력을 23.3%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고속버스 예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필요한 경우 예비차량을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철도는 기간중 총 385만명, 하루 평균 22만명이 이용하고 하루 최대 이용객은 8월2일 23만명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열차 운영을 하루 평균 773회에서 778회로 5회 늘려 수송능력을 0.6% 늘린다. 수요가 집중되는 7월29일~8월1일 임시열차(KTX 40회)와 7월30일~8월1일 중련편성(SRT 14회)을 통해 공급 좌석을 늘린다.

일반열차는 지역축제 일정 등을 고려해 장항선, 전라선, 경부선에 새마을호 임시열차를 52회 추가 운행한다. 기존에 운행하던 무궁화호 중 일부는 방사해수욕장(7월19일~8월18일)과 분천역(7월19일~8월18일 중 토·일)을 임시 정차한다.

항공은 총 80만명, 하루 평균 4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국내선 항공기 운항을 하루 평균 460편에서 481편으로 12편 늘려 수송능력을 2.6% 늘린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된 8월3일(5만명)엔 최대 75편을 증편한다.

해운은 이 기간 중 총 55만명, 하루 평균 3만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고 하루 최대 이용객은 8월3일 3만명으로 관측됐다. 이에 여객선 운항횟수를 하루 평균 778회에서 879회로 101회 늘려 수송력을 13% 확대한다.

안전 및 편의 대책도 함께 시행한다. 휴가지 인근 톨게이트와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하고 교통량이 집중되는 주요 구간에는 드론과 경찰청 암행순찰차로 전용차로 위반, 과속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1천건 돌파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주민이 1000명을 넘어섰다.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고, 3건 중 1건이 보이스피싱 피해 때문이었다.

22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 2017년 5월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모두 1653건의 변경 신청을 받아 1449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1001건(69.1%)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가(인용)했다. 432건(29.8%)은 기각, 16건(1.1%)은 각하로 각각 결정했다.

신청 사유를 보면 보이스피싱·신분도용·해킹 등 재산상 피해 또는 피해를 우려한 경우가 1147건(69.4%)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 253건(15.3%), 상해·협박 피해 134건(8.1%), 명예훼손·학교폭력 70건(4.2%), 성폭력 49건(2.9%)으로 뒤를

이었다.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한 1001건의 사유만 뜯어보면 재산 피해 612건(62.0%), 생명·신체 피해 380건(38.0%)이다.

세부 사유별로는 보이스피싱이 3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분도용 275건, 가정폭력 210건, 상해·협박 112건, 성폭력 39건, 명예훼손·학교폭력 19건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63건(66.2%)으로 남성(33.8%·338건)의 2배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45건(24.5%)과 서울 235건(23.4%), 인천 61건(6.1%) 등 수도권 지역이 절반 이상이었다. 부산 72건(7.2%), 대구 58건(5.8%), 충남 50건(5.0%), 경북 44건(4.4%), 강원 39건(3.9%) 등의 순이었다.

뉴스



### 이런판결 저런판결

## 필라테스하다 수강생 전치 8주 부상...1심 법원 "강사 무죄"

"통상 강도증가 넘는 운동시켰다보기 어려워"

수강생에게 무리한 동작을 요구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라테스 강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필라테스 강사 이모(39)씨에게 지난 10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8월 서울 마포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서 수강생 A씨에게 운동기구 '보수(BOSU)'를 이용해 무리한 스텝운동을 시켜 전치 8주의 아킬레스건 파열상 등 부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보수는 반원형 돔 형태의 고무소재 운동기구로, 균형감각이나 민첩성을 기르기 위해 필라테스 등 운동에서 흔히 사용된다.

검찰은 이씨가 중심을 맞잡고 휘청거리는 A씨에게 안전하게 운동을 하도록 돕거나 지도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스텝운동을 하도록 지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범

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씨가 이전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만 유독 피해자에게 무리한 준비운동을 시키고 피해자가 균형을 잡지 못하는 데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고까지 요구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보수 운동은 특별한 전문 동작을 요구하지 않는 계단 오르내리기 운동이므로 몸이 힘들거나 무리가 느껴질 경우 스스로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갑작스런 무리한 요구에도 멈추지 못하고 이 사건 상해를 입을 때까지 계속 스텝운동을 했다는 점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운동 고습 과정에서 운동능력 향상을 위해 좀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을 요구하도록 돕거나 지도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스텝운동을 하도록 지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범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운영하지 않으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